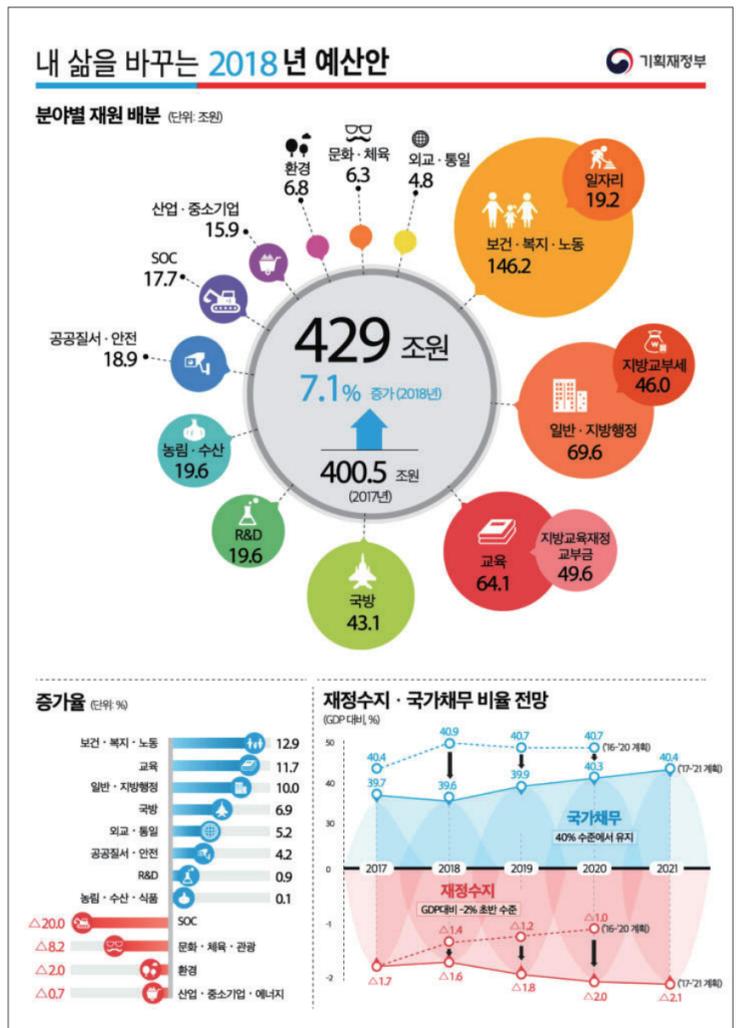


국민의당, 시대착오적 '호남 홀대론' 즉각 중단하라

전체 SOC 예산은 23%, 호남 SOC 예산은 16% 감액
'신청도 않은 예산 책정' 주장, 국가·계속사업 개념도 모르는 것



호남 SOC 예산삭감을 이유로 국민의당이 '호남홀대론'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나 호남 SOC 예산삭감 비율은 전국 삭감률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예산이월 등 합리적 이유에 따라 줄어든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당이 호남의 SOC 예산만 줄여든 것처럼 왜곡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고비마다 호남을 볼모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구태 중의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

한 429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은 방만한 SOC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광주는 1조7천800억원, 전남은 5조5천억원이 반영돼 전년 대비 각각 0.78%(139억원), 1.6%(892억원)가 늘었다. 정부의 SOC 예산 20% 삭감 계획에 따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비 등 호남 SOC 예산도 16% 감액됐다. 그러나 전체 SOC 예산은 23%가 줄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서 호남 SOC 예산을 거론하며 "SOC 예산 삭감은 호남차별"이라며 "영남

에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SOC 예산 3천53억원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8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과 기재부 안에 반영된 예산액을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남은 주요 SOC사업에서 건의하지도 않은 예산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3천53억원이나 반영한 반면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 호남 쪽 예산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신청하지도 않은 영남 예산이라고 문제삼은 △포항~영덕고속도로 △중양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대구선 복선 전철화 등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정부부처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을 요청한 사업들로 밝혀졌다. 대구지역의 한 언론은 이와 관련,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사업, 계속사업 개념조차 모르면서 예산을 논하는 건 스스로 무지를 알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SOC 삭감에 대

해 자극적이고 시대착오적 호남홀대론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보이고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지난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SOC 분야 '호남홀대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신(新)호남홀대' 프레임을 만들어 정부와 호남을 이간질함으로써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자체 요구액을 전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민주당과 지역을 이간질시켜 어떻게든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뜨리겠다는 알팍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윤희덕 예결위 간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호남 5개 SOC사업 금년 이월액이 1천446억 원으로 예상돼 내년 예산액 2천879억 원을 합치면 4천325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의 95% 수준이 확보된다"며 "홀대론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전남도의회 문행주 도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호남홀대론'으로 지역민심을 호도하려다 혹독한 심판을 받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호남홀대론' 안 통하네

안철수 대표 호남투어 불구, 호남지지율 10%대 이하로 '추락'

리얼미터 여론조사, 5.7% 정당지지율 최하위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이유로 '호남홀대론'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영남에는 예산폭탄을 내리고 호남은 대폭 삭감했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다. 그러나 '뒷밭' 호남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강공에도 불구하고 호남민심은 요지부동이었다.

11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실시한 9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은 꼴찌로 내려앉았다. 민주당이 49.7%로 1위, 자유한국당이 16.7%로 2위, 바른정당이 6.3%, 국민의당은 정의당과 함께 5.7%의 최하위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지율 회복을 위한 반동의 출발점으로 '호남'을 선택해 지난

6일부터 5박6일 간 전남 동부권 투어에 나섰다. 이 기간 중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호남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호남 홀대론' 확산에 주력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일간 지지율은 4일 6.6%, 5일 5.7%, 6일 5.9%, 7일 6.4%, 8일 5.4%를 각각 기록해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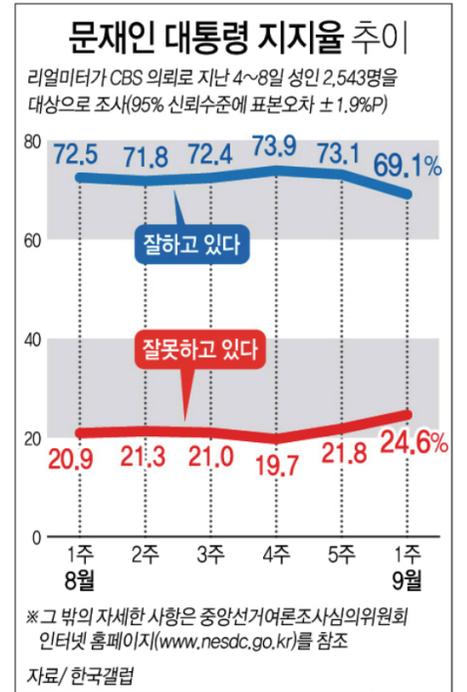
호남에서는 더 떨어졌다. 8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14.3%에서 9월 1주차 9.7%까지 하락했다.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지를 이전한 호남을 여전히 뒷밭으로 인식하는 착각에 빠진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은

호남이다. 문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은 8월 5주차 85.8%, 9월 1주차 87.3%에 이른다. 안 대표는 호남이 여전히 국민의당의 뒷밭으로 인식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SOC 예산 홀대론'을 폈지만, 호남 홀대 논란이 퍼진 8일에는 일간 집계 5.4%로 주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호남에서의 지지율 역시 14.3%에서 9.7%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 8월 5주차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253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1%,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1.9%p다. 9월 1주차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1.9%p다.



논평

'호남 홀대론'은 신(新) 지역주의 조장하는 구태정치

정부의 내년 SOC 예산안과 관련, '영남 배려, 호남 차별'을 주장하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과거 정부의 방만한 SOC 예산을 축소해 재정 건전성 악화 없이 일자리 만들기과 복지 분야 등 사람중심 투자를 늘리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SOC 예산액이 전년 대비 22.9% 감소했고, 전국의 모든 SOC 사업이 축소 반영됐다. 그러나 호남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16% 정도 삭감에 그쳤다.

국민의당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마치 영남을 퍼주고, 호남만 차별한 것처럼 호남 홀대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자 신(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구태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은 75억이었으나 2018년에는 154억으로 79억 원이 오히려 증액되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노선 결정

이 되지 않아 내년 공사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노선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또 고속철을 포함한 호남권 5개 주요 SOC 사업의 금년 이월액만 1천446억으로 예상돼 이를 합치면 내년 예산은 올해 SOC 예산의 95% 수준이 확보된다.

따라서 호남 홀대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지지율 반동을 위한 왜곡된 지역주의 조장 책동에 불과하다.

지역민들은 호남과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시켜 지지율을 높여보려는 꼼수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홀대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구여권 보수정당과 합세해 호남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킨 국민의당의 이중행태야말로 심판받아야 한다.

국민의당은 근거없는 호남 홀대론으로 문재인 정부와 호남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적폐세력과 손 잡고 사법개혁을 가로막은 처사에 대해 지역민에게 사죄하길 바란다.

2017. 9. 13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SOC 호남홀대론, 과연 사실일까?

노컷뉴스, '영남배려, 호남차별' 주장은 '대체로 거짓' 결론
지자체 건의액은 참고 자료, 영남 SOC 예산도 대폭 축소

2018년 SOC 예산배정에서 영남은 배려, 호남은 차별하고 있다는 국민의당 주장은 "거짓에 가깝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CBS 노컷뉴스는 12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영남 지자체의 건의가 없었는데도 3천53억 원을 특혜 배정해 '영남 배려·호남 차별'을 했다"는 주장은 팩트 체크 결과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명했다.

같은 당 박지원 전 대표도 지난 7일 황 의원의 주장을 인용, "정부는 누가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 폭탄을 영남에 투하하고 호남차별을 계속하는지 밝히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남 예산 편성을 두고 "귀신이 예산 배정을 했다"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국토부 재정담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7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 추진 SOC 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사업과 예산계획을 세우며, 전체적인 스케줄과 사업조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의액도 참고자료일 뿐이며, 건의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의액 없이 예산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 계획과 구상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이뤄져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예정대로 사업비를 배정한다는 것.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경우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할 단계가 아니며, 올해 편성된 예산 730억 원 중 554억 원도 사용되지 않아 이월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154억 원을 편성했



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노컷뉴스 확인 결과 영남도 SOC 분야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4천520억이 삭감된 2천560억이 반영된 것을 비롯, 포항~삼척 철도건설, 울산~포항 복선전철 역시 전년 대비 3천823억, 2천878억 원씩 줄었다.

노컷뉴스는 따라서 "오히려 예산 삭감 폭이 큰 지역은 영남이 많아 호남 홀대, 영남 배려 주장은 '대체로 거짓'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광장 호남SOC예산 정책홍보물

발행인 | 이개호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전남 무안군 삼합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이개호 도당 위원장 ‘호남 SOC예산 홀대’ 반박 회견

“호남만 삭감된 것처럼 호도, 정부와 호남민심 이간질”
 “고속철은 1천460억원 불용, 미집행 등으로 예산 줄어든 것”



구분	상세1	2017확정(A)	2018정부안(B)	B-A	지역
	철도 소계	6,941,507	4,383,519	-2,557,988	기타
도로	민자유치건설보조금	853,600	390,592	-463,008	기타
철도	도담-영전복선전철	708,000	256,000	-452,000	영남
철도	포항-삼척철도건설	506,900	124,600	-382,300	영남
철도	울산-포항복선전철	337,500	49,700	-287,800	영남
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268,671	33,745	-234,926	충청
철도	부산-울산복선전철	325,600	106,500	-219,100	영남
철도	군장산단입입철도건설	135,000	7,800	-127,200	호남
철도	하남선복선전철	133,000	11,594	-121,406	수도권
철도	원주-제천복선전철화	257,500	150,000	-107,500	강원
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214,300	120,081	-94,219	영남
철도	익산-대야복선전철	100,000	13,000	-87,000	호남
철도	수원-인천복선전철	131,900	55,207	-76,693	수도권
도로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	100,000	27,923	-72,077	영남
철도	서해선복선전철	583,300	517,000	-66,300	기타
철도	수송차량구입	142,100	82,014	-60,086	기타
철도	대구선복선전철	70,000	10,000	-60,000	영남
철도	이천-문경철도건설	287,600	228,000	-59,600	영남
철도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73,000	15,400	-57,600	호남
철도	영천-신경주복선전철	109,500	54,000	-55,500	영남
도로	민자유치활성화지원	309,430	258,300	-51,130	기타

단위:백만원

▲ 주요 SOC사업 전년대비 반영액(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두고 일각에서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자 여당 내 유일한 광주·전남 현역의원인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호남 지역민을 이간질하는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내년 호남의 SOC 예산이 전년보다 16%줄어든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전남의 경우 전체 예산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음에도 일각에서 ‘사다리 건너차

기’, ‘예산홀대’라며 정채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 예산은 전년보다 1.6%(892억원) 증액된 5조5천억원”이라며 “내년도 정부 SOC예산이 22.9% 삭감됐으나 호남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16%만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사업비가 올해 730억원에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비 154억원만 반영돼 94.9%가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9월 현재 미집행 예산이 1천460억원에 달해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치 호남 SOC 예산만 줄어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부와 호남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호남은 보수정권 9년 동안 예산 홀대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려 정부와 호남 지역민들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당 ‘2018지방자치 아카데미’ 개설, 수강생 모집

2018년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고의 지역 정치인재 양성을 위한 등용문 역할을 할 ‘2018지방자치 아카데미’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관으로 오는 19일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개설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8일 2018지방선거 승리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정치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18지방자치 아카데미’ 수강생을 11일부터 15일까지(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정원은 50명이며, 수료자에게는 지방선거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 우수 수료자 도당 위원장 표창장 수여, 유력 정치인 멘토 연결, 동기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 특권이 부여된다.

첫 강좌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한국정치와 호남의 미래’란 주제로 실시하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원내총무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전략’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이어 강기정 전 의원(광주북갑위원장)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 안일원 리서치부 대표, 정창교 ‘당선노하우 99%’ 저자 등이 문재인 국정철학과 당의 비전,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선거실무 및 전략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접수 및 문의는 전남도당 사무처 061-287-1219.

도의회, ‘전남 SOC예산 반영 건의안’ 표결 무산

민주당 도의원들 표결 거부, 국민의당 발의 건의안 저지

전남 SOC 예산만 삭감한 것 처럼 “왜곡”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이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SOC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으나 무산됐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국민의당 배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간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으나 우리 당 도의원들의 표결 참여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은 무

산됐다. 건의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남 SOC 호남 홀대가 현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간 양극화 등을 완화하기 위해 SOC 기반이 취약한 전남 SOC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왜곡된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우리 당 도의원들은 “전국적으

로 SOC예산이 줄었는데 전남만 많이 줄어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이자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논리와 판박이다”며 반박했다.

우리 당 우승희 도의원은 “건의안 대비 반영률은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당이 만들어놓은 정치공세 프레임 안에서 이뤄지는 건의는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호남 SOC 홀대 안했다”

김동연 “예산 통과후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지역경제 돕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3일 국민의당의 SOC예산 호남홀대 비판에 대해 “특정지역을 고려해 홀대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 윤후덕 의원이 “호남 홀대, 영남 홀대 SOC예산을 편성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조기건설을 약속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국민의당 비판에 대해선 “이것(적정성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면, 거의 2조원에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적지만 수년 내 규모가 큰 사업이 이뤄져 호남의 숙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많은 분들이 SOC가 줄면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데 복지 쪽은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재고해야 한다”며 “어떤 쪽 투자가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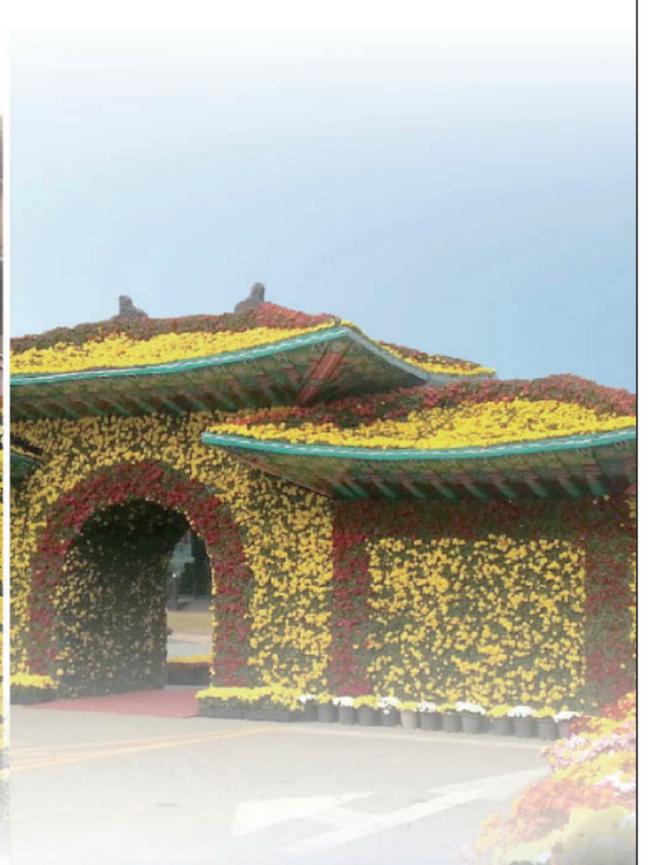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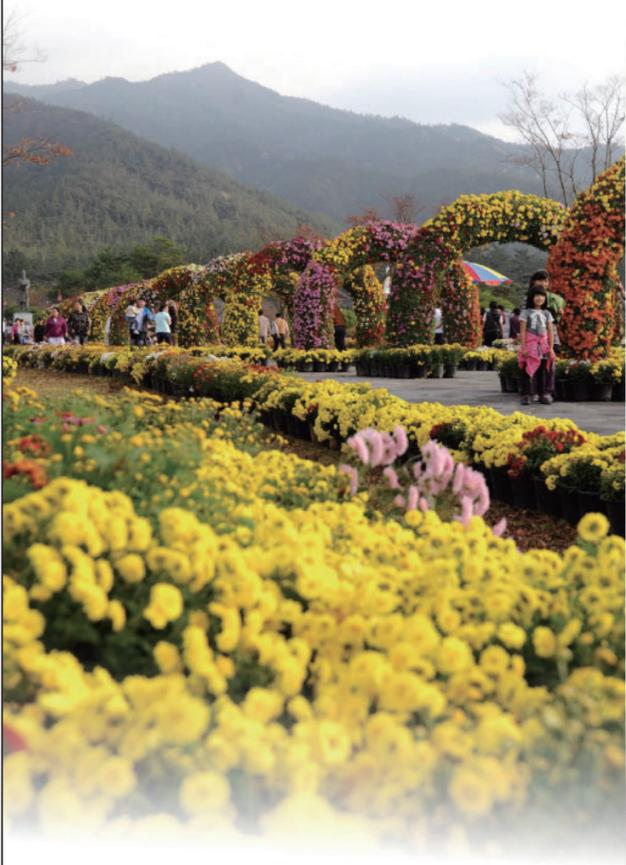
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인지를 측면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OC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와 고용 감소 우려는 있다”며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된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선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2017 **가을** **가을** **가을**

가을꽃축제

2017. **10.28** (토) ~ **11.12** (일) / 16일간
월출산 기찬랜드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에서 펼쳐지는 가을의 경이로움!
 가을의 경이로움! 가을의 경이로움!